

실업자 급증... "고통분담 최선책"

공무원도 IMF체제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에 동참한다.
 정부와 여당은 3월23일 당정협의 회에서 장·차관 20%, 1-3급 15%, 4급이하 공무원에 대해 10%씩의 봉급을 삭감, 약 1조2천억의 재원을 마련해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저소득 실직자들의 실업대책비로 사용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번 조치는 공무원들도 건축과 내림을 견디면서 고통을 함께 나누도록 하였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시

공무원 봉급 20~10% 삭감 실업대책비로 종교·시민단체 "서로 돕는 세상 가꾸자"



봉급 반납결의
 3월23일 오전 행정자치부 14층 회의실에 모인 행정자치부 직원 2백여명이 4월부터 봉급 10%를 자진 반납하기로 결의하고 있다.

경실련·환경연합 10만명 고용창출 '산림가꾸기' 추진
 '생명의 숲 가꾸기 국민운동 추진 위원회'는 3월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창립대회를 갖고 산림자원 조성사업과 실업자 구제를 위한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경실련과 환경운동연합 등은 실업자 10만여명을 흡수, 국유림을 포함한 30만ha의 숲에서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덩굴제거, 천연림 보육, 버섯채취 등의 산림작업을 펼쳐게 되는 대규모 고용창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실련 등은 4월 3일에는 나무심기와 목욕나누기 행사도 연다. (02)741-7961

민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이는 민간기업은 물론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 정부부처기관등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소외계층이 된 실업자의 부조(扶助)에 사회각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수 있기 때문, 더욱이 IMF체제가 1백여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벌써부터 흐트러지고 있는 내림을 통한 위기극복 정신을 바로 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무원 봉급에 대한 전면적인 삭감조치는 정부수립이후 처음있는 일로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삭감 보다는 반납조치를 희망해 왔으며 지난 3월23일 행정자치부 소속 4급이하 공무원 2백여명은 회의실에 모여 '봉급 10%반납'을 결의했다. 드디어 봉급에서 1만원씩을 거둬 6개월 동안 실직자 가정에 매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사랑의 봉급 나누기 운동'도 발인다.
 공무원의 봉급 삭감을 계기로 사용자와 근로자 등 시민들의 고통분

담이 확대돼야 한다는 여론도 높이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일시적인 휴업이나 근로시간 단축, 유·무급휴가 등의 방법을 통해 중임원의 해고를 일시적으로 유보하는 기업들도 늘고 있다.
 종교·사회단체들도 고용보험이 보호하지 못하는 근로자에 대해 사회부조의 차원에서 복지지출을 확충하는 등 전국민적 지원운동을 벌여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조계종은 지난 3월13일 종로일대에서 '자비의 탁발' 행사를 벌여 4천여 만원의 성금을 모으는 등 전국적으로 '한민족 공동체를 위한 대법회'를 열어 모금액의 상당액을 실직자를 위해 쓸 예정이다.
 또한 백양사는 실직자를 위한 불교귀농학교를, 동화사등 10여개 사찰은 IMF침터를 개설해 재기를 돕고 있다. 기독교계와 MBC등 방송사도 실직자 기금 모금에 나서고 있어 공무원의 실직수당을 계기로 온국민의 '고통 나누기'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불교의 눈 "사법법 실천 더불어 살자"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3월 22일 관악산 연주암(주지 자승) 주최 '한민족공동체를 위한 대법회'에 참석, "깨달고 보면 나와 이웃과 삼라만상이 하나"면서 "실직자들 불우이웃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성금모으기에 동참, 사회구조운동에 앞장서자"고 당부했다. 서울시청 불심회 조정봉 상임지도법사(갑사관)는 "공무원의 봉급삭감이 각 가정

안겨주게 될 어려움이 적지 않았지만, 보너스 반납은 물론이고 기본급 삭감까지 흔쾌히 받아들이고 있는 근로자의 마음을 생각할 때 공무원들도 동체대비(同體大悲)의 정신으로 고통분담에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들에게 보시 애어(愛語) 이행(利行) 동사(同善)의 사법법으로 은혜를 베풀면 국가가 편안하고 흥할 것이다."(방동경)

복지부 노숙자에 귀향·급식비 지급 서울시 '노숙자 재기 합숙소' 추진

4월 1일부터 도시노숙자(Homeless)들에게 무료급식과 귀향여비가 제공된다.
 보건복지부는 IMF사태 이후 직장을 잃고 집을 나온 노숙자들이 전국적으로 3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4월말 10개월간 2천원 상당의 점심을 종교단체나 사회복지단체가 운영하는 급식소를 통해 무료로 제공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불교계는 조계사를 비롯 17개 무료급식소가 적십자사에 예산 지원을 신청) 또 지방에서 일자리를 찾아 무작정 상경한 노숙자들에게 귀향을 원할 경우 1인당 2만원의 귀향여비를 지급키로 했다.
 한편 서울시는 실업 노숙자들을 수용할 '홈리스 재기 합숙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강북구 서울시장은 3월23일 "60년대 서울역 근처 남영동에 있었던 '근로자 합숙소'를 본떠, 노숙자들이 재기할 기간 동안만 최소한의 비용으로 숙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합숙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전국 심리학교수들 '실직자 봉사단' 발족

연세대 심리학과 이훈교수는 3월23일 대규모 실업시대에 실직자와 그 가족들의 무료심리상담을 위해 전국 모든 대학 심리학 과가 참여하는 가칭 '심리학 봉사단(02-361-2437)'을 이날 발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전국 모든 대학과 사설상담단체 등 43개 단체가 참여 의사를 밝힌 '심리학 봉사단'은 실직된 뒤 불행과 자살유혹 가정 불화에 시달리는 실직자와 그 가족의 심리치료에 나서게 된다.

어머니에 신장기증한 여고생

충남 논산 건양고 1학년 에 재학중인 이명인(이명인·16)양은 지난해 11월 악성 신부전증으로 죽음을 눈앞에 둔 어머니(홍선자·홍선자·38)에게 한쪽 신장을 기증, 삶을 되찾게 했다. 이양은 당시 딸의 몸에 칼을 들 수 없다며 한사코 신장이식을 거절하는 어머니를 간곡히 설득, 수술을 받도록 허 주위를 감동케 했다. 오재욱 충남교육감은 3월18일 이양에게 표창장과 격려금 20만원을 전달했다.
 교수 미망인 장학금 1천만원
 지난 2월초 중증으로 숨진 서울대 농화학과 박창규

(당시 64세)교수의 미망인 장옥희(54·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씨가 서울대에 장학금으로 1천만원을 내놓았다. 장씨는 박교수가 지병인 중풍으로 사경을 헤매던 지난 1월말 학과에 "남편의 후학들을 위해 기념이 될 만한 일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고 최근 농화학과 학술기금으로 1000만원을 기탁했다.
 서점주인 책 13만권 기증
 대전의 한 소형서점 주인 이 각급 학교와 학생도서관 등에 20년간 모두 13만 여권의 책을 기증해온 사실이 밝혀져 화제다. 대전시 중구 대흥 2동 대전시청 앞에서 대영서점을 운영하는 정낙영(53)씨는 지난 2월 대전과 충남

도교육청을 통해 후원 이공수의 소설(壽)등 2백여가지의 책 1만여권(5천여만원 상당)을 기증하는 등 올해 20년째 해마다 각급 학교의 도서실 등에 책보내기를 계속하고 있다
 백혈병 이웃에 1백명 헌혈
 경남 양산시 동면 석산리 해강아파트부녀회(회장 이정희, 0523-386-0607)는 같은 아파트 3동 1008호에 거주하고 있는 성영옥씨(35·여)가 올해초 백혈병으로 투병생활을 시작하자 이웃의 마음을 함께 나누기로 하고 집집마다 성금을 모으고 있다. 부녀회는 이와 함께 헌혈운동을 전개해 1백여 명이 지난 3월21일 오후 아파트 광

여중생 4명 동반 투신사실

여중생 4명이 고층아파트에서 투신, 동반자살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3월25일 오후 6시30분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한신아파트 123동 앞 콘크리트 바다에 몸이양(16·J여중3년)등 같은 학교 3학년 학생 4명이 떨어져 괴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것을 이 아파트 경비원 이모씨(51)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임양 등은 긴급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 인근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투신 현장상황과 유서내용, 학교관계자의 진술과 미뤄 이들 여중생이 불우한 가정환경 등

이유로 동반 자살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의사 소비자파산 첫 신청
 소비자파산 신청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의사가 처음으로 법원에 파산신청을 신청했다.
 일반의과 전문의 김모씨(37·부산 남구)는 94년 5월 개인병원 개업시 은행에서 3천만원을 빌린데다 친구가 사업자금 8억원을 대출받는데 보증을 서졌으나 이 회사가 부도가 나는데 총 9억3천만원의 빚을 떠안게 됐으며, 이중 7천여만원을 갚았지만 더 이상 상환능력이 없어 3월23일 부산지법에 소비자 파산을 신청했다.

우리사회의 집단과 개인 이기주의는 이제 우려할만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최근 서울 시민에게 신지 직송으로 쓴 값에 농수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96년부터 추진돼 온 '하여울' 농수축산물 전시 판매장 설립이 강남 지역 주민과 상인의 반대로 무산됐다.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던 집단이기주의에는 속수무책임을 보여준 사례다. 또 얼마전에는 막대한 부실채권을 안고 있는 은행이 명퇴자에게 최고 3억원의 위로퇴직금을 지급해 기관이기주의라는 비난을 받았는가 하면 정부 부처 이기주의로 인해 국정이 매끄럽지 못하다는 얘기도 들린다. (편집자 주)

마땅히 나와 남의 생각 버리고 홀로 거처하면서 사랑을 마음 닦아 욕심 없애어 더러운 냄새 없게 하여야 제석 하늘에 태어날 수 있다. (불설장이화경)
 아나야, 마땅히 알라. 애(愛)를 인하여 구함이 있고 구함을 인하여 이익이 있고 이익을 인하여 욕심이 있고 욕심을 인하여 집착이 있고 집착을 인하여 집착이 있고 집착을 인하여 지킴이 있고 지킴을 인하여 보호가 있다. 아나야, 보호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칼과 막대과 송사가 있어 무수한 악을 짓는다. (잡아화경)
 공평이론이 논쟁이 있는 곳에는 온갖 번뇌가 많이 일어나게 마련이니, 슬기로운 사람은 응당 이를 멀리하여 한다. (대보적경)
 괴로운 일이다. 중생이 탐욕에서 허덕이는 자 짙은 금은보화가 아무리 많아도 만족할 줄 모르는 것이 그들이다. 이런 속에 즐거움은 적은 반면 괴로움이 많은 것은 당연하며, 지혜있는 자라면 능히 깨닫는 바 있어야 할 것이다. (정생왕인연경)
 부처님께서 바라다산에 계실 때였다. 어느날 부처님

게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대개 이익이라 하는 것은 사람을 나쁜 곳으로 떨어뜨려 깊은 도의 경지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 수행하는 이익에 집착하지 말고, 이익을 추구하려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 수행하는 사람이 이익에 매달리면 오분법신(五分法身)을 성취하지 못하게 된다." (중일아화경)

부처님께서 사위성 기원정사에 계실 때였다. 어느 날 사소한 일로 대중들이 다투게 되었다. 부처님께서 대중을 향해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큰 뜻을 가지고 출가하였는데 어찌하여 어리석은 마음으로 탐욕을 일으키고 성내고 다투어 서로 미워하고 혼란에 빠지느냐. 그것은 마치 어둠에서 나왔다가 다시 어둠 속으로 들어감이고, 변소에서 나와다가 다시 변소로 들어가는 것이며, 피로써 피를 씻으며, 악을 버렸다가 다시 악에 빠지는 것과 같느니라. 어찌 그 많은 생각 가운데 탐욕의 생각, 미워하는 생각, 해치려는 생각에 매달리느냐. 이 세상에 집착하는 것치고 죄가 되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잡아화경)

이 기주의 만족할 줄 모르고 허다하면...
 (중일아화경)
 (정생왕인연경)
 (잡아화경)

신상품
'연지근지 우리웃'
 명절 뿐만 아니라 평상시 일할때나 외출할 경우에도 입을 수 있는 개량한복 '연지근지 우리웃'.
 전통한복의 느낌을 살려 캐주얼하게 현대적으로 디자인한 이 제품은 땀흡수가 잘 되는 면을 소재로 사용, 운동할 때나 불자들의 기도 정진 시에 유용하게 입을 수 있다.
 웃은 각 계절에 따라 저고리, 바지, 속저삼, 원피스, 두루마기 등 10여종이 있으며 색깔은 20여 가지 이상이 될 정도로 다양하다. 가격은 8~11만원. (02)3461-8552

두가지의 크고 불가사의한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팔괘(八卦) 만다라 액자의 신비(神祕)"
 우연히 발견된 팔괘 만다라 액자의 신비스러운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 만다라는 제불보살님과 신(神)들이 들어갈 수 있는 성역 공간으로서 이는 살아 있는 우주의 삼라만상 그 자체이며, 우주의 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다라가 있는 곳에는 항상 우주의 총명한 생기(生氣)가 가득 모여 있습니다. 집안에 만다라를 걸게 함은 이러한 우주의 기(氣)가 집안에게 가득 차게 합니다. 그러나 만다라 자체만 걸어 놓으면 상스러운 우주의 생기가 그 안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는 상태로 지속되기 때문에 이 기(氣)를 끌어내어 집안 전체에 기(氣)를 고르게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팔괘를 도입하여 합일시킨 결과, 놀랍게도 불가사의하고 신비스러운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팔괘 만다라 액자
 ◎ 소재
 · 팔괘: 고급 나무 목판 팔각형
 · 만다라: 양미늘판에 직접 색채 도안 조성
 ※ 그 위에 유리보다 더 깨끗하고 투명하며 깨지지 않는 영구적인 특수기법 처리
 규격: 45cm x 45cm
 ◎ 보급가: ₩ 300,000 ⇒ ₩ 150,000
 (그동안 30만원에 보급했던것을, 이제 15만원에 보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급처: ❶ 성지관음회 (회장 혜천)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4-9490, 34-9491
 야간 : (0342)706-3060
신비한 작용
첫째 가정, 사무실, 사업체 등에 걸어 놓은 결과 사악한 기운을 추방하고 불길한 운세를 흡수시키면서 약하고 침체된 기(氣)를 활성화시키고 강화시켜 사업이 활발해지고 재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음식점이나 가게 등에 걸어 놓으니, 외부의 좋은 기를 끌어당기는 영향 때문인지 고객과 돈은 불려들고 있습니다.
둘째 집안의 환관, 거실, 안방에 걸어 놓으니 집안 전체에 흐르는 수액(지하수)의 영향이 완전히 차단되는 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이 실험을 직접 본 집에서는 방마다 깔아놓았던 동판들 모두 건어고 있습니다.)
 ◎ 팔괘 만다라의 수액 차단 실험은 2명의 수액 전문가를 초빙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실험 테스트를 거친 결과로서 불가사의한 이 현상을 믿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 팔괘 만다라 액자는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외양을 갖추고 있어 어느 가정이나 사무실에 걸어 놓아도 어울리는 분위기를 자아내도록 조성되었습니다.
 · 불자들의 선물·생일선물·개업선물·집들이 선물
 ·연말연시 선물 등으로도 단순한 액자가 아닌 행운과 재운과 건강을 불러오고 보강해주는 액자라는 점에서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선적으로 자신의 집에 걸어 놓으시는 것을 잊지마십시오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 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연락주시는 대로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책은 영가의 장으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 책자 내용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고통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 하는가?
 ④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⑤ 조상대대, 친족, 연족, 연족, 알제지 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천도시킬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⑥ 특별 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⑦ 각 방편들의 내용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 천도 기도방법.
 ⑨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⑩ 특별 천도재를 지내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❶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4-9490, 34-9491
 야간 : (0342)706-3060

불자님을 위한 전문 광고회사
광고다운 광고!
 "광고전문가와 만나십시오"
 광고는 해야 하는데 아무곳이나 맡길 수도 없고, 아시는 광고회사도 없습니까?
 광고를 맡겨서 시작한 사업을 광고(카타로그, 광고전단) 잘못으로 낭패를 보시겠습니까?
 화 주십시오! 돌아서니 한마음으로 불자님의 광고를 천대드리겠습니다.
 케를 해라하고, 경쟁사보다 우위에 설수 있는 생생한 광고를 제작해드리겠습니다.
 가장 광고회사는 아니지만 근본에 어긋남이 없이 최선을 다하는 광고회사 애드-윌입니다.
 * 인쇄 관련 모든 광고를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 기업홍보 브로셔, 제품 카타로그, 리플렛, 상품전단
 - CI, BI 메뉴얼, 심플 로고작업, 특수인쇄
 - 신문광고, 잡지광고, 포스터, 카렌더, POP
 COVERING WILL
 원혜광
 광고문의 : (02) 512-8868 · 8869